



언론 객관성의 실천적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 :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홍원식 동덕여대*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행태주의적 비판에서 윤리 규범적 이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언론의 객관성과 객관주의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객관주의와 탈객관주의적 언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객관성을 윤리 규범의 실용적 가치를 통해 재정립하는 실용적 객관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팩트체크의 제작진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예시하고자 하였다. 심층인터뷰의 결과, 팩트체크 제작진들은 객관적 진실을 취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때로는 모순적이며 복합적이면서도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객관성을 통해 이들의 검증과 보도는 타당성의 판단이 작동하는 비교 평가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론에 있어서 객관성은 본질적이기 보다는 수사적(rhetorical)이며, 기술적(technologic)이기보다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목적적인(telos)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KEYWORDS 객관주의, 객관성, 탈객관주의, 공론장, 윤리 규범, 텔로스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wraisong@dongduk.ac.kr

1. 서론

언론에서 ‘객관성’(objectivity)이란 가장 빈번하게 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없이 무의미한 용어로 치부되어 있는 듯하다. 매일 만나는 수많은 언론 보도와 또한 그에 대한 저널리즘 비평에서 빈번이 언급되는 언론 윤리 덕목이면서도, 실제로 그 객관성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쓰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무의미하며, 또한 많은 경우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관례적으로 언급되는 수사적(rhetorical) 표현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의미하게 보인다¹⁾.

이는 저널리즘을 연구해온 언론학에서도 유사하여, 언론의 객관성은 어느 연구주제 못지않게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온 주제이면서도,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가장 덜 논의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론학에서 진행되어온 객관성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은 정확히는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이기 보다는 객관주의(objectivism)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의 객관주의로 포괄되는 여러 보도 관행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객관주의를 탐구한 언론학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언론의 객관주의적 보도 관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이를 언론 객관성 전체 논의와 쉽게 등치시켜 언론 객관성 전반에 대한 비판을 키워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연구들은 객관주의의 비판을 통해서 언론의 현재 보도 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잘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객관주의 비판에 언론 객관성이 갖는 함의를 모두 포함

1) 본 연구에서 “수사적(rhetorical)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밝히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결론부에서 밝히듯이,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은 해당 표현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와 상관없이 특정 표현이 갖는 명령적 기능 또는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미(美)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시켜서 언론 윤리로서의 실천적 가치를 상실시킨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를 워드(Ward, 2004/2007)의 표현을 빌리면, “학문계는 이론으로서 객관성을 해체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실천을 인도할 새로운 기준을 구성하는 데는 비참하게 실패했다”(Ward, 2004/2007, p. 23)는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철학적 논의에서 객관성에 대한 고찰은 주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인식 대상의 존재에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나아가서,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주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인식 대상이 있다하더라도 과연 이를 모두가 동일한 대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질문들은 소박실재론(naive realism)의 논의를 넘어 여러 형태의 존재론적 논의와 인식론의 논의를 형성하고, 형이상학을 넘어 실용주의 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철학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 논의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발전과 달리 언론학의 객관성 논의에 있어서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가 되는 기자의 관행에 초점을 맞춘 인식론적 제약에만 방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즉, 취재자의 인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보도 대상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는 소박실재론에 대한 비판 수준에서부터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사고 중단된 상태이며, 기자의 형식적 객관주의에 입각한 보도 관행이 실제로는 관습과 권력의 관계 등으로 인한 영향에 의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 전체를 부정하는 비약된 논리적 구조를 보여 왔다(예, Gans, 1992). 이렇게 본 연구에서 기존 언론학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비약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 언론학의 객관성 비판이 실제로는 ‘객관성(objectivity)’에 대한 논의보다는 언론의 ‘객관주의(objectivism)’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객관성이 가질 수 있는 언론 윤리로서의 실천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언론 객관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객관성이 가지는 실천적 가치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객관성이 갖는 언론 윤리적 실천 가치를 조명하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소박실재론적 비판과 객관주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탈피하여, 언론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실질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실용적(pragmatic) 객관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학의 논의를 객관성에 대한 논의와 객관주의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고, 기존 연구들이 객관주의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는 탈객관주의적 시각을 재비판하는 이론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언론계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팩트체크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객관성이 어떠한 실용적 의미를 갖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아직까지 팩트체크가 우리 언론을 대표하는 주류의 보도 관행으로 볼 수는 없으나, 새롭게 나타난 언론의 장르이자 취재 관행으로서 기존 언론의 대안적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²⁾, 팩트체크를 제작하는 보도진이 실제 언

2) 아직까지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팩트체크의 저널리즘적 의미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팩트체크의 객관적 근거에 대한 강조가 기존 저널리즘에서 주창하는 객관성의 가치와 원칙적으로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저널리즘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려는 관점과, 반대로 기존 저널리즘은 보도의 대상으로서 사건의 존재에 대한 사실 판단의 영역에서 객관성을 강조한 반면 팩트체크의 의견의 영역에서 객관성 판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 이해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의 팩트체크의 다양한 모습에서 이러한 두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를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팩트체크를 기존 언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이준웅(201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언론의 객관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의견의 이분법적 구분이 실제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분리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견해에서 기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팩트체크 자체의 분석이 목적이 아니라 실용적 객관성을 팩트체크를 통해 예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팩트체크의 차별성 보다는 저널리즘의 일반성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론의 객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탐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팩트체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객관적 보도 윤리의 실용성을 일반화하거나 대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게도, 팩트체크는 다양한 보도 유형들 중 하나의 영역으로 언론 보도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재와 보도 관행을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몇몇 언론사의 팩트체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팩트체크 보도의 여러 유형을 일반화한다고 볼 수 없다. 대신, 본 연구에서의 팩트체크 제작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팩트체크의 취재 및 보도 행태와 언론 윤리로서의 객관성 추구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줄 수 있는 한편 이는 객관주의에서 강조하는 균형 또는 중립성과는 차이를 갖는 것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팩트체크를 통해 저널리즘 객관성의 실용적 함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핵심은 팩트체크 제작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객관성의 실용적 윤리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객관성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실용적 객관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팩트체크의 사례를 활용하여 실용적 객관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객관성을 ‘개인의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성질’로 규정하는 철학적 정의를 비춰보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물질세계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개별적 주관이 일치되는 보편적 주관성을 의미하는 관념론적 이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객관성을 당위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윤리 상대주

의와 윤리 보편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학의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론학에서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객관성이라는 주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주목하기 보다는 소박실재론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윤리학의 핵심적 문제로서 객관성 논의를 포괄하지 못한 채 객관주의 보도(objective journalism)로 한정하여 이를 비판하는 단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워드(Ward, 2004/2007)는 객관성에 대한 논의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근대에 등장한 인식론적 방법론으로서의 객관주의와 달리 이론과 실천의 지향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이론적 지향이란 개별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신념을 초월하는 보편적 지식의 추구를 의미하며, 실천적 지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극적 목적(telos)에 기반한 윤리 철학에서 나오는 특정한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에 대한 분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객관성에 대한 사고가 근대 초기 과학 담론의 형성과 함께 인식방법론적인 '순수객관성'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워드의 논의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문헌고찰을 통해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도 이론과 실천지향의 객관성과 인식방법론적 객관주의를 구분하고자 한다.

1) 객관성과 객관주의 보도

철학적으로 객관성은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의 분리를 전제로 주체에 의한 객체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 인식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본래의 철학적 의미와 별개로,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은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크게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두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중에서 사실성은 본래의 철학적 객관성 개념에 가

까운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불평부당성은 오히려 본래적 의미의 객관성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영역의 특수한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만하다. 언론에서 이렇게 객관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타난 기술적 적응의 결과물을 객관주의 보도(objective journalism)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객관주의 보도를 옹호하는 연구들은 객관주의 보도가 특히 중립성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객관성의 현실적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불가능한 객관성 대신 보다 현실적인 중립성으로 객관성을 대체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식론적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Lichtenberg, 1997). 반면, 김사승(2013)은 객관주의 보도 행태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을 실제 객관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립성과 불평부당성을 채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는 본래의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와 이를 기술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객관성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많은 언론학 연구들에서 객관성에 주목한 것은 객관성의 원론적 이해에서 출발하였다기보다는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비판 연구들은 언론의 객관주의 보도 행태를 언론의 전문화 과정(professionalization of journalism)에서 발생한 행태적 결과물로 이해하고 있다(남재일, 2008). 특히, 미디어 사회학적 전통의 연구들은 언론사가 언론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업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이 속에서 기자들이 전문직업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도 행태로서 객관주의 보도를 설명하고 있다(예, Tuchman, 1972; Schudson, 1978, Hackett, 1984). 미디어 사회학적 전통의 대표적 연구로서, 셔드슨(Schudson, 1978)은 미국의 페니프레스의 등장에서부터 언론의 상업화와 전문직업화의 뿌리를 찾고 있다. 페니프레스의 등장이 이전까지 당파지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게 되고 사건 중심의 보도와 취재기자의 등장, 그리고

‘비트(beat)시스템’과 같은 객관주의 보도의 기본틀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터크만(Tuchman, 1978)은 한층 더 나아가서, 언론의 객관주의는 단지 언론사가 자사의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 객관주의 보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나타난 것이 언론이 기업화되며 선정주의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과 폭로 저널리즘(muck-raking journalism)의 시기를 지나 대기업들의 언론사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1920년대였다는 점에서 셔드슨과 터크만 등 언론의 기업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객관주의 보도의 행태에서 자주 발견되는 보도 관행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지적 역시 공감할 만한 것이다.

갠스(Gans, 1979)를 포함한 미디어 사회학적 전통의 학자들은 객관주의의 관행 속에서 나타나는 취재와 보도의 행태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들은 언론이 객관주의를 표방하며 정부 관료나 기업 홍보 담당자 등 기존 체계 내에 ‘고급(elite)’ 정보원을 통해 전달된 견해를 사회적으로 합의된 견해로 간주하여 공식화하여 보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객관주의 보도 관행은 기존 권력 체계의 밖에 존재하는 소수의 견해는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기성 권력질서를 강화하는 결과로 연결된다고 비판한다(Cook, 1998; Hackett, 1984; Shoemaker & Reese, 1996). 또한, 객관주의의 보도 관행이 실제로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저널리스트를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여러 견해를 단순히 인용 전달하는 단순 관찰자의 위치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였다(Durham, 1998, Glasser, 1984).

국내의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연구 역시 미국의 미디어 사회학적 전통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명구(1994)는 한국에서도 대다수의 독자의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상업적 언론이 일종의 직업 이데올로기로서 객관보도가 수용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남재일(2008)은 한국 언

론의 객관주의 역시 언론의 기업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언론의 객관주의와 맥을 같이 하지만, 한편으로 군사정권 정치적 요구가 언론의 형식적 객관주의 관행이 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 언론의 형식적 객관주의가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를 60년대 언론 통제의 상황 속에서 언론 기업의 제작비 감소가 만들어낸 지면의 축소에서 찾고 있다. 지면의 축소는 편집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레 탈정치적이며 탈맥락적인 사건중심 보도의 관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권문환(2008)은 국내에서 언론 객관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을 1960년대로 추정하며, 이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등장하였지만, 이는 1970년대에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객관성의 기계적 중립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시기에 “현실적 타협물”로서 객관주의의 형해화된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유선영, 1995). 한편, 박아란(2016)은 국내 언론에서 객관성이 언론이 지켜야하는 근본원칙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여전히 덜 정의되어 왔으며 객관성에 대한 관심 보다는 이를 대신하는 공정성 또는 불편부당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의 객관주의의 등장은 언론의 기업화와 맥을 같이 하는 역사성 속에서 이해되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객관주의 보도행태는 사건 중심의 보도 경향과 기존 권력질서를 옹호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객관주의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언론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주의 보도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는 셔드슨(2001)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정치경제적 관점의 설명과 기술결정론적 이해는 언론의 객관

주의 보도에 대해서 행태적 차원에서만 타당한 것이고, 왜 언론인들에게 언론 윤리적 차원에서 객관성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다수의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비판 연구들이 스스로 지적하듯이, 객관주의 보도 관행과 언론 객관성이 반드시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비판들은 이러한 객관주의 보도 관행이 외형상으로 균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객관성을 대체하는 전략적 행위이지만 실제로 이는 객관성이 추구하는 독립된 진실에 대한 접근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Kovach & Rosentiel, 2001). 즉,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미디어 사회학 전통의 비판 연구들은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단순히 나열해 놓거나 정부 관료나 기업 홍보 담당자 등 특정한 정보원에만 의존하는 객관주의 취재와 보도 관행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정작 언론의 객관성이 갖는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객관성이 언론의 객관주의에서 나타나는 중립성 또는 불편부당성 만으로 회귀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강명구, 1994; 최영재, 홍성구, 2004; Rowley & Grimes, 1984; Ryan, 2001). 저널리스트에게 객관성이란 사실 취재의 영역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미학적 영역과 윤리적 영역을 포함하는 뉴스의 전 과정에서 작동하는 실천적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 연구들은 객관주의 취재와 보도 관행을 비판함으로써 언론의 객관성 전체를 부정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Ryan, 2001).

2) 탈객관주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셸러(Schiller, 1981)는 언론의 객관주의의 등장을 과학에서 나타난 실

증주의적 인식론의 영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실증주의 인식론이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객관주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보인바 있다. 여기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이란 엄밀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의된 절차적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갖는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하면 객관적 실체를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쉐러(1981)의 지적과 같이, 과학에서 실증주의와 언론의 객관주의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 가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관 또는 언론기관의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고 이를 따름으로서 얻어진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 과학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언론의 객관주의는 하나의 시대적 사조이며 인식의 주체로서 주관과 객관적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표준화된 체계를 통해서 개인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신념은 인식의 대상과 주체라는 이분법에 기반하면서도 개인의 인식의 능력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주체가 외부의 독립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소박실재론(corresponding truth)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나, 결국은 다른 형태의 인식보다 더 나은 과학적 또는 합의된 방법과 절차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실재론적(realist) 세계관으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학의 실증주의는, 하버마스(Habermas, 1991)가 지적하듯이, 방법론을 마치 인식 주체와 분리된 것으로 개념화하여 결과적으로 방법론을 비인격화된 신의 지위에 올려놓으며, 나아가서 방법론과 인식론을 동일시함으로써 인식 주체의 성찰적 사고를 막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객관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들은 언론의 객관주의가 '객관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사회적 지위를 특수화하고 이를 통해 언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최영재, 홍성구, 2004). 나아가서, 이러한 비판은 객관주의의 얼굴로 특별하게 취급

받는 언론의 지위를 사회의 다양한 담론 경쟁 중 존재하는 하나의 지위로 재위치지우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젤리저(Zelizer, 1993a, 1993b)는 저널리즘을 하나의 해석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인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교류와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담론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직업적 경험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의 틀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김상호(2007)는 언론의 객관성을 하나의 해석틀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석틀로서의 객관성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언론의 객관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p.34). 그는 저널리즘의 해석틀이 완전히 역사성이나 공동체로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창작의 구성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언론의 위치를 보편적인 가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특수한 맥락과 특정한 형식의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저널리즘의 속성을 하나의 해석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과학자나 저널리스트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때로는 계몽적이라 할 만큼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기관들이 사실은 자신들 스스로의 통제와 자신들의 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로서 해석의 틀을 공유하고 있는 해석 공동체일 뿐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당연히 이러한 과학자나 저널리스트 해석 공동체의 담론 역시 진리의 절대성 또는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대적 영역으로 위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의 저널리즘 대안은 실제 저널리즘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저널리즘을 하나의 해석 공동체 또는 해석틀로 이해하는 견해는, 흔히 계몽저널리즘으로 지적되어온 저널리즘의 엘리트주의적 독단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과학과 달리 저널리

즘은 그 속성상 언제나 집단내의 구성원이 아닌 다수의 인식 주체들 즉 공중을 담론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학 지식의 논쟁에서 과학을 하나의 해석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과학 지식의 담론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집단 내 구성원의 승인을 일차적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저널리즘의 경우는 그 속성상 저널리스트가 아닌 독자 또는 시청자 등의 타자들의 인정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즉, 저널리즘은 사실에 대한 누구만의 해석이 아닌 보편적 해석을 지향해야 하며, 보편적 해석에 기반할 때 자신의 물질적 존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이자 영역이다. 이런 면에서, 저널리즘을 하나의 해석체로서 이해하는 견해는 저널리즘을 계몽적 지위를 박탈하는 면에서는 공감할 만한 윤리적 함의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저널리즘의 공공영역에서 역할 또는 보편지향성을 포기해야하는 것으로서 주장한다면 이는 저널리즘의 속성이나 현실 모습에 비취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Downie & Shudson, 2009)³⁾.

한편, 탈객관주의 흐름 속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며 기존의 객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대안 모델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동우와 황용석(2012)에 따르면, 상대주의적 관점의 탈객관주의적 보도가 나타난 것이 1960년대 미국의 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조에는 언론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음에도 형식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종의 책임회피로 이해하는 공통적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탈객관주의 관점은 객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저널리즘’이나 ‘주창저널리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p.130). 이러한 탈객관주의적 시각의 대안적 저널리즘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언론을 통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

3) 오히려 현재 저널리즘의 위기는 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인한 경쟁의 심화 속에서 저널리즘 개별적 주체들의 이익추구 결과로 나타나는 저널리즘의 개인화 또는 사적 영역화가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의 공공영역의 역할과 공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만들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 주목하기보다는, 대화 모델의 민주주의(conversation model of democracy)를 추구하며 대화의 공간이자 매개체로서 언론의 공론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더함(Durham, 1998)은 객관주의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객관적 사실을 표방하는 언론의 보도가 공중의 진실 추구 과정을 '지성적으로 막다른 길(intellectual dead end)'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대화를 민주주의의 도구로 이해하기 보다는 민주주의 자체를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으로 간주하며, 언론의 역할을 끊임없는 대화의 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목소리를 이끌어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홍원식, 이효성, 2016).

탈객관주의적 견해에서만 대화 또는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공론장에 대해서는 하버마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여러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탈객관주의 관점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견해들은 기존의 공론장의 성격에 대한 하버마스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⁴⁾. 하버마스와 같이, 전통적 개념의 공론장 모델은 진리, 규범, 진정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들이 교환되어 보편화용적 진리를 획득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지만, 탈객관주의적 관점은 진리 추구의 성격으로 공론장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규범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언론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윤리관 또는 선입견으로 인해 규범제한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언론의 역할은 객관성과 같은 특정한 규범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차이(differences)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오는 책임

4) 예를 들면, 대화 또는 공론장에 대해서 하버마스의 견해와 프래그마티즘적 견해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경우 그의 공론장과 대화의 견해는 민주주의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도구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때론 이를 비판받고 있지만, 로티(Rorty) 등에서 보이는 프래그마티즘은 대화를 일종의 '무한 순환' 과정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연대(solidarity) 자체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원용진, 이수엽, 2010; 정현철, 2008; 임상원, 2017 참조).

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탈객관주의적 시각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 사실 판단과 같은 목적 지향적 규범이 전혀 없다면 왜 언론이 여러 다른 목소리를 대화의 장으로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언론을 대화의 장으로 규정한다면, 다양한 대화의 영역 중에서도 공공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대화일 것이다, 즉,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특수한 대화에 언론이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한 직업적 사명감과 같은 규범적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차치하고라도, 언론이 갖는 사실 추구와 같은 규범적 사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대화를 지속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객관성이 주체로부터 독립된 진실의 존재를 지향해야 한다는 언론의 규범적 틀이어서 이를 통해 언론의 공론장 또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적 규범도 없이 단순히 이를 포기하고 언론에게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라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책임과 동기적 측면에서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대화의 지속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3) 실용적 객관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진행되어온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객관성이 갖고 있는 언론 윤리의 가치로서 의미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형식과 관행으로서의 객관주의 논의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객관주의에서 나타나는 취재 관행의 문제점을 언론 객관성의 윤리적 문제로 등치시켜서, 객관성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다.

다행인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부 연구들이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실

천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해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원식, 이효성, 2016, 임동원, 2017, 유용민, 2018 등). 대표적으로, 임동원(2017)의 견해는 기존의 소박실재론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 실용적 의미로서 객관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래그머티즘은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동원은 프래그머티즘의 객관성에 대한 부정이 토대주의적 또는 표상주의적 관점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언론의 객관성에서 담고 있는 실용적 진리관에서 나타나는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저널리즘의 모든 윤리적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성이라는 면에서 평가된다는 측면에서, 저널리즘의 본래 성격상 프래그머티즘의 사고와 같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면에서 프래그머티즘의 목표가 ‘지식 대신 희망’을 강조하여 실천(praxis)을 돕는 것이듯, 저널리즘의 객관성의 문제 역시 객관적 사실의 근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구로서의 유용성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객관성의 문제를 형이상학이나 토대주의적 인식론 문제가 아니라 도구로서 유용성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임상원은 로티(Rorty)의 견해를 빌어서 진실이란 “마음의 울림을 일으키는 것”이란 표현으로 답하고 있다(p. 264-267)⁵⁾. 이러한 견해를 언론의 객관성을 통해 이해하자면, 언론의 객관성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반형이상학적이며 반토대주의적인 명목상의 정체성이며 언론인들의 “마음의 울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홍원식과 이효성(2016)은 언론의 객관성의 문제를 저널리스트의 행동을 규정짓고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수사학적으로 이해

5) 로티의 진리관은 임상원의 견해보다는 더 반플라톤적 성향인 것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의 견해에서 진리는 상호주관적 동의로 이해되며, 진리를 탐구의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Ward, 2004/2007). 객관적 진리를 전제하는 언론의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그의 프래그마티즘 견해는 여전히 탈근본주의적이며 실용적인 관점으로 객관성을 재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언론인의 정체성을 명명하는 하나의 목적적(telos) 가치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객관성에 대한 도구적 이해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정체성이자 심리적 동기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웅과 김경모(2008)의 연구는 언론의 진리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정의하여 출발하기 보다는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거나 “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된다” 정도의 명제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언론의 행위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p. 16-17). 이는 근본주의적 태도의 진리관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언론에서 진리 개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이준웅(2010, 2013)은 데이비슨(Davidson, 1997)의 견해에 기반하여 결국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진리를 전제하지 않고 발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언론의 보편타당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책임이 언론의 진술적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객관성의 윤리적 규범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들은 객관성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언론의 윤리적 규범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공정성이 객관성을 대신할 수 있는 규범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언론인들의 해석 틀로서의 상대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객관성을 포기함으로써 언론인이 다양한 가치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김상호(2007)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한 객관성 개념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맥락적 상황에 맞는 규범 판단을 요구하는 적극적 윤리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객관성이라는 보편적 판단기준을 포기함으로써, 언론의 사실에 대한 보도와 의견을 전달하는 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이 아닌 각기 다른 판단(예를 들면, 공정성 또는 균형성)의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이며⁶⁾, 이는 객관성 보다는 공정성을 강조하는(정

동우, 황용석, 2012 참조) 국내 언론학의 경향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바탕에는, 언론의 객관성이 사실 타당성의 판단 영역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소박실재론 또는 토대주의적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보편화용론의 개념이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의사소통 행위는 그 자체로 어떠한 명제에 대한 사실 타당성과 함께 발화행위의 규범적 타당성,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다(Habermas, 1984; 이준웅, 2010 참조). 즉, 언론 객관성이 외부의 실재에 대한 표상주의적 객관성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판단이 청자와 화자간에 간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보편성 또는 일관성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언론의 객관성은 단순히 사실 보도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보편타당성에 대한 윤리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성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

6) 남재일(2004)은 공정성 연구를 객관주의적 관점과 탈객관주의적 관점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를 따르면, 객관주의적 공정성이란 윤리 규범적 측면에서 객관성과 단지 명칭 이상의 차이를 갖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이 상대주의적 윤리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보편성에 대한 견해이다. 칸트의 철학처럼 선형적으로 결정된 강한 보편성은 아니지만, 언제나 예/아니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천적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보편성이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담론윤리학에서 보편성원칙을 전제함으로써 규범적 의사소통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윤리학의 보편성은 실용적 보편성(pragmatic universality)라는 점을 의미한다(홍원식, 2014).

는 대부분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었고, 객관성이 갖는 윤리 규범으로서의 실용성에 대해서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객관성이 윤리 규범으로 갖는 실용성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언론 규범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객관성은 진리의 근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진리의 탐구에 대한 규범이라는 관점으로 언론 객관성이 실제 언론 현장에서 갖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워드(2004/2007)는 무언가를 탐구하는 사람이 어려운 방법과 주의 깊은 평가를 고수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언론이 여전히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진리가 탐구를 시작하게 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리는 규범적 이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인 것이며, “진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거나 얻고자 노력할 무언가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탐구할지를 규제한다. 즉,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탐구의 출발점으로 여전히 진리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p.392).

물론, 실용적 객관성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가 흔히 객관주의 언론 연구에서 자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소박실재론 수준의 토대주의적이거나 표상적인 진리의 발견을 위한 탐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리히텐버그(1997)가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임상원(2017)과 워드(2004/2007)는 모두 언론 객관성의 우연이나 오류가능성 등 인식의 결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진리 역시 영원불변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 대신 실용적 객관성이 대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보편성인데, 워드(2004/2007)는 보편성이 존재론적 실재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어 나타나는 보편성, 이론의 일관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보편성, 그리고 상호인격적 관계의 보편성 등이 종합된 포괄적인 사고, 즉 전체론적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⁸⁾. 즉, 영원불변의 절대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경험, 사실 주장이나 믿음들과 일관되고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보편 타당한 전체론적 해석 또는 평가가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다⁹⁾. 나아가서 워드(2004/2007)는 이러한 전체적 해석으로서의 진리관에 기반한 실용적 객관성은 첫째, 사실-가치의 이분법으로 나뉠 수 없는 것이며 (이준웅, 2010 참조), 둘째, 현재 보편적이지만 오류가능성에 열려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이지 않으며, 셋째, 전체적이며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는 데 이러한 특징에 대한 이차적 비교 판단이 가능하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용적 객관성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언론의 객관성이 존재론적이지 않지만 윤리 규범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적이라 전제하고, 이러한 수사적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팩트체크 제작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워드(2004/2007)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팩트체크 제작진에게 객관성이 실용적으로 중요한 윤리 규범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면, 이는 객관성이 무엇보다 진실 탐구의 뚜렷한 동기로서 작동해야 할 것이며, 이를 언론 취재의 결과와 보도를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를 비교 판단이 가능한 진리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론인들만의 타당성 판단이 아닌 보편적 판단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8) 이 부분에서 워드는 다분히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워드의 견해는 전체적으로 프래그마티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프래그마티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유용성에 대한 관점은 수용하면서도 로티(Rorty)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9) 이러한 인식론 또는 진리관은 젤리저(1993a, 1993b)나 김상호(2007)가 강조한 언론인의 해석체로서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편적 또는 전체적 해석으로서의 진리를 강조하는 실용적 객관성의 관점에서는 언론이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식의 주체인 언론과 독자와 같은 타자간의 사실 해석 또는 평가에 있어서 일관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언론의 상대성을 전제하는 견해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 객관성의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팩트체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팩트체크 보도 현장에서 객관적 진실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팩트체크 보도 현장에서 보도 객관성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팩트체크 보도 현장에서 객관성은 어떠한 실용성을 갖고 있는가?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팩트체크 사례 연구

본 연구는 객관성이 갖는 언론 윤리로서의 실용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언론의 새로운 보도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팩트체크 보도를 하나의 사례로 살펴본다. 팩트체크는 2000년대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분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뿌리를 찾아보자면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미국의 주요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나타난 하나의 저널리즘 사조라 할 수 있다(김필규, 2017; 정재철, 2018). 팩트체크는 이미 90년대 CNN 등에서 미 대선 후보들의 선거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던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2000년대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Fact Checker), 팩트체크오알지(Factcheck.org), 폴리티팩트(Politifact)와 같은 온라인사이트들이 정치인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자신들의 ‘레이팅 시스템(rating system)’으로 평가하는 보도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 불거진 가짜뉴스(fake news) 논란은 팩트체크 보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현재는 미국의 대부분 주요 언론사에서 팩트체크의

전담자를 두거나 전문적 보도 영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필규, 2017; 정재철, 2018).

국내에서 팩트체크 보도는 종편채널 JTBC가 2014년 자사의 메인 뉴스에서 동명의 코너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17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등의 대안매체를 비롯하여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SBS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 담당자를 두어 정치 뿐 만아니라, 사회, IT 분야에서 해당 보도를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정은령, 2017; 김필규, 2017). 팩트체크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팩트체크의 성공을 객관주의적 보도 관행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정은령, 2017). 김필규(2017)는 단순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는 인용 보도의 관행을 깨고 “진실의 판정자(arbiters of truth)”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온 것이 현재의 팩트체크 보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진실에 대한 접근 태도가 팩트체크의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p.30).

- 심층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주요 팩트체크 제작진들과 언론 윤리로서 객관성이 갖는 현장에서의 함의를 찾고자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언론인 모임을 주도하고 해당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J기자를 통하여, 활발하게 팩트체크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언론사들과 담당자들을 추천받고 이중 5곳¹⁰⁾의 기자들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활발하게 팩트체크 보도를 하고 있는 모 종편채널의 담당자를 핵심적인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다른 4개 언론사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이를 보완하거나 재확인하여 해당 종편채널 담당자 인터뷰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는 다각화(triangulation) 과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심층인터뷰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연구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단순 과정이기 보다는 상호작용으로서 의미를 함께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홀스타인과 거브리움이 심층인터뷰를 상호적인 의미창출로 정의하는 것과 같이 (Holstein & Gubrium, 1997), 통계적 대표성을 확인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로서 활용되는 심층인터뷰는 현실의 민감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확인하고 찾아내기 위해 질문자와 응답자 사이에 상호적인 개념 정의와 이에 대한 조정 또는 의미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언론 윤리 규범으로서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복잡성과 언론 탐구 대상으로서 진실의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질의하고 응답하는 단선적 과정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의 과정을 질문자(interviewer)와 응답자(interviewee)의 관계가 아닌 의미 구성자들(constructors)간의 적극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진행하였다(나미수, 2015; Holstein & Gubrium, 1997).

본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인터뷰 대상인 모 종편채널 팩트체크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는 구조화된 과정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응답자와 친밀성(rapport)을 형성한 후 상호 인식의 수준을 일치시키고 본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본 인터뷰를 위한 만남이전에 전화 통화와 간이 사전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의 친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만남 이전에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갖는 구체적 연구 문제를

10)

인터뷰 대상	소속	직급	인터뷰일시
A	모 종편채널	팀장급	2018. 8. 31
B	지상파 A	담당 기자	2018. 10. 3
C	지상파 B	담당 기자	2018. 10. 5
D	모 신문사	담당 기자	2018. 9. 4
E	모 인터넷 언론사	담당 기자	2018. 8. 21

제시하였다¹¹⁾. 이 과정에서 기존 객관성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던 비판적 견해를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어쩌면 응답자가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언론의 객관성 개념을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 영역으로 환기하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인터뷰에서는 응답자가 실제 취재 및 보도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이 객관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상호 논의를 통해 의미 구성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응답자에게 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의미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확인과 추가 의견을 받은 후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텍스트로 전환한 인터뷰 내용은 연구문제에 따라 단락별로 재분류하여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1) 객관적 진실에 대한 정의

객관성이란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객관

11) 본 연구 연구방법의 특성상 주요 질문은 구조화되기 보다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상호적 논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인터뷰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준비 되었으며, 이는 진행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거나 변형되어 적용되었다.

순서	주요 질문 내용
1	보도 윤리적 측면에서 팩트체크팀이 다른 취재팀들과 차별되는 점 (더욱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2	팩트체크팀에게 보도의 객관성이란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천적 접근을 취하고 계십니까?
4	만약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어떤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 사이에서 취재 방향이 충돌하는 경우, 팩트체크팀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5	흔히 일부에서는 모두에게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팩트체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보도의 객관성이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때로는 보도의 객관성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립 또는 균형적 보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언론 자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성을 언론의 객관주의 보도 형식으로 축소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는 객관적 진실의 존재라는 본래의 개념에 충실하기 보다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취재와 보도의 관행을 살펴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기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팩트체크에서 과연 객관적 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은 객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취재나 보도의 관행 자체를 언론의 객관적 진실로 간주하기 보다는, 취재활동의 결과로서 발견할 수 있는 목표로서 객관적 진실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거 이상의 근거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찾는 그제 제가 봤을 때 주관을 덜어 내고....그러니까 완전히 건어낼 순 없지만 상당부분은 건어내고 객관적 사실로 접근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경험적이 있구요 (A, 모 종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

정치권의 공방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 그리고 그 논거들을 그야말로 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팩트체크 보도의 목표는 아닐 겁니다.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혹은 어떤 발표 자료를 믿어도 되는지 등을 기자가 검증해 중국에는 하나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C, 지상파 B 팩트체크 담당기자)

진실을 접근 불가능한 영역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취재 활동을 통해 대체한다는 견해와 탐구 활동의 결과로서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태도와는 큰 차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접근불가능의 영역으로 전제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취재활동은 진실을 목표로 하는 탐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의 구성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객관적

진실이라는 목표를 전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않는다. 반면, 진실을 접근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진실에 대한 주장은 진실에 더 가깝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비교의 영역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 제작진들과의 인터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더 정확한” 또는 “가장 객관적인” 등의 비교 표현들은 해당 제작진들에게 객관적 진실이 분명한 목적지 또는 목표로서 규정되며, 이에 대한 그들의 취재와 보도가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더 정확하거나 더 근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진실에 대한 사고가 흔히 지적되는 것과 같이 표상주의적 사고인 것은 아니다. 표상주의적 진리관(representational truth)에서 객관적 진실의 존재는 우리의 탐구 활동으로 확인되는 표상의 결과와 완벽한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탐구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진실에 대한 완벽한 일치로 간주하기 보다는 더 가까운 곳에 다가가기 위한 연속된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실 거짓 혹은 어느 지점에서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추구하는 바이지만 세상사가 그렇게...다 일도양단 하진 않아요. (A, 모 종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

특정 사안에 대해 100%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팩트체크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B, 지상파 A 팩트체크 담당기자)

팩트체크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는 객관주의 언론에 대한 비판 연구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과 같이 소박실재론이나 표상주의적 진리관(representational truth)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인

터뷰 결과는 이들에게 객관적 진실이라 탐구의 결과로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재와 보도의 언론 탐구 활동을 통해서 완벽히 표상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객관적 진실을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객관적 진실을 최종적으로 표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분히 모순적이며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언론 객관성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될 때, 그들의 취재 활동은 분명히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의 활동이며 동시에 그 탐구 활동이 객관적 사실 판단의 완벽한 종결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실 주장들과 비교 판단되고 타당성이 검증되는 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도의 객관성

팩트체크 제작진들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진리관이 바로 그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다른 사회적 담론들에 대해서 보편타당성에 대한 예/아니오의 평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 제작진의 사고를 따르면, 정치인들의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담론들은 그 자체로 보편적 진리의 목표 하에서 경쟁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규정되며, 팩트체크의 취재 및 보도는 그 담론들의 타당성에 대한 비교 판단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담론이 될 것이다. 이는 팩트체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역시 객관적 진실이라는 목표를 온전히 표상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회 담론의 진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탐구 과정을 통해 결국 보도라는 표상(representation)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모순적이다. 팩트체크의 제작진들은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팩트체크 보도 할 때) 흘러가는 이슈나 사안의 “플로우”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의 취재결과를 이렇다 다만 이제 종결된 또는 확정된 사실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는 것을 충분히 담아 준다면 그 진행상황을 보여 주는 것도 보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모 종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팩트체크의 제작진들에게, 팩트체크의 보도 역시 최종적 표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다가가는 전체의 대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언론의 영역이 다른 사회 담론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판단, 즉 “진실의 판정자”(D, 모 신문 팩트체크 담당기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이를 다른 사회 담론의 영역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사회의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팩트체크의 보도가 최종적이거나 확정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도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통해서 재반박되거나 타사의 보도를 통해서 부정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언론의 공간 또는 공론장을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대’ 중심주의 또는 공화주의적 공론장의 견해와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팩트체크의 제작진들의 견해가 그들의 공론장과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팩트체크 제작진들에게는 언론을 통한 보편타당성의 판단이 다른 사회 담론들과 동일한 심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화의 과정이 아니라, 이는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심화”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가장 ‘공정’이란 표현은 사실 팩트체크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가장 ‘객관적’인 것이 맞습니다. (A, 모 종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듯이 나는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맥락 속에서는 달리 보도 하는 것이니 결국 '가치를 향한 객관성'이 중요할게 아닐까요? (D, 모 신문 팩트체크 담당기자)

이는 팩트체크 제작진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객관보도를 균형이나 공정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에 이를 “나열”이나 “인용 저널리즘”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점에서 확인된다. 팩트체크 제작진들은 자신들의 보도가 공정성이나 균형성의 기준 때문에 여러 주장들을 나열하는 보도 행태와는 차별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도는 이미 정치인들이나 각종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 등 사회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며,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나열하는 것은 단순히 동어반복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의 연속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팩트체크의 제작진들이 의도하는 보도의 객관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팩트체크의 보도는 그 자체가 완벽한 객관적 진실 자체 일 수는 없으며 이는 사회의 거대한 진실 탐구 과정의 일부이겠지만, 이는 흔히 공화주의적 공론장의 견해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화된 대화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언론의 객관성은 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공론의 장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심화된 탐구 활동으로서 각 담론의 근거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판단함으로써 ‘심화된’ 대화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혹은 주관성을 배제한) 사실을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덧붙여져야 보도의 가치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런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결국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

기도 합니다만, 사회적 맥락과 뚝 떨어져서 홀로 무절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D, 모 신문 팩트체크 담당기자)

절대 다수 혹은 대중, 건강한 시민사회, 공정한 시민의 가치, 이런 것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저는 객관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 해야죠. (A, 모 중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

팩트체커는 상식적인 수준을 가진 대다수의 시민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선의 객관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B, 지상파 A 팩트체크 담당기자).

다음으로, 팩트체크 제작진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은 그들에게 보도의 객관성이란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대상이기 보다는 ‘다수의 시민’으로 형상화되는 보편성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들은 공통적으로 ‘시민’과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진실에 대한 해석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보편성 또는 ‘사회적 맥락’과의 일관성을 갖게 될 때 보도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작진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사실 확인 과정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여건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은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당성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아이টে를 배제하고, 진위 여부 판단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원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참조하는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러한 ‘낙관적’ 태도는 그들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하려는 보도가 ‘시민의 수준’에서

납득될 만한 사실 확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한한 수준의 사실 확인이 아닌 “충분한” 수준의 사실 확인인 것인데, 바로 그 “충분한” 수준의 사실 확인이라는 것을 다수의 시민 또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보편성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실용적 객관성

팩트체크 제작진과의 인터뷰는 그들에게 보도란 진실에 대한 궁극적이거나 최종적인 심급의 판단은 아니면서도 적어도 ‘시민의 관점’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옳고 그름의 타당성 판단이 가능한 영역에 진행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들의 ‘객관적 진실’에 대한 태도가 다분히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적 진실에 대한 태도는 그들에게 어떠한 윤리 규범적 작용을 하고 있을까? 결국, 이 질문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객관성의 실용적 가치를 확인하는 핵심이다.

가장 큰 동기부여는 어떤 그 굉장히 그 논쟁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부딪힐 때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그 상황을 종결짓는다는 일종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또 아웃풋을 보는 희열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A, 모 중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

팩트체크의 경우에는 객관성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 보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기사의 경우 사안 자체를 전달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독자 몫으로 돌림으로서 입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팩트체크의 경우 입증의 영역까지 팩트체커가 맡게 됩니다. 팩트체크 보도는 사실 확인 과정이나 판단 근거를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E, 모 인터넷언론 팩트체크 담당기자)

이에 대한 답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준 것은 바로 최근 가장 활발하게 팩트체크 보도를 하고 있는 모 종편채널 팩트체크 책임자였다. 그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부분을 강조할 때, 그의 객관성에 대한 태도는 로티(Rorty)의 “마음의 울림”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그와의 인터뷰는 팩트체크의 제작진들이 자신들의 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사실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이를 발견하겠다는 ‘희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기존 연구들이 객관성이 갖는 한계에 주목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공정’과 ‘균형’ 등을 강조하였지만, 팩트체크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는 이러한 대체 개념들이 객관성 만큼의 “마음의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근거가 존재하고 이를 확인해서 보도한다’ 만큼의 명료한 슬로건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대체 개념들이 “5매짜리 여야 반응 기사에서 민주당 한줄, 한국당 한줄, 정의당 한줄...”(D, 모 신문 담당기자) 쓰는 식의 기자의 무기력한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팩트체크팀은 특정인의 진술이나 정책 등 팩트체크의 검증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진실이나 거짓이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 윤리적 부담이 더 크다고 봅니다. (D, 모 신문 팩트체크 담당기자).

그 작업이 끝난 뒤 내놓는 결과물에까지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중립을 고수하는 건 팩트체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 지상파 B 팩트체크 담당기자)

반면, 객관성의 윤리 규범으로서 실용적 가치는 팩트체크 제작진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팩트체크 제작진들은 팩

트체크의 보도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도 업무들보다도 더욱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큰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언론의 수많은 보도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담론에 대한 재현이라는 점에서, 해당 주장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단지 팩트체크에만 해당되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팩트체크의 제작진들은 다른 보도 영역에서는 궁극적 판단이 “시청자의 몫으로 미뤄질 수 있지만” 자신들의 경우에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보도를 통해 판정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커다란 사회 담론 형성의 역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팩트체크의 보도 역시 최종적인 진실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 전체 담론 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책임의식을 허위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약하자면, 팩트체크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는 그들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 때로는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것이지만, 객관적 진실에 대한 태도는 소박실재론 수준의 표상주의적 사고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다수의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의 지향과 전체적으로 진실에 대해 비교 판단의 영역에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로 이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객관성이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순적일 수 있지만, 공정이나 균형 등의 개념으로 쉽게 대체 될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강한 책임의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윤리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객관성의 가치는 인식 방법론적 함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고와 합목적적 행동의 추구라는 실천적 가치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

고 이전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언론학은 언론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익숙했지만, 객관성이 어떤 윤리적 실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주의에 대한 행태적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성이 갖는 언론 윤리로서 갖는 규범적 가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 객관주의, 탈객관주의적 시각과 구분되는 본래의 이론-실천적 함의를 강조하는 실용적 객관성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팩트체크의 사례를 통해 현실의 공간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언론 현장에서 이러한 실용적 객관성이 작동하는 모습을 예시하기 위하여, 팩트체크 제작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팩트체크 제작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객관성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실제 취재 현장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팩트체크 제작진들은 객관적 진실을 취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하게 정의된 객관적 진실의 개념은 아니지만 때로는 모순적이며 복합적이면서도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그들의 취재 결과를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결과로 단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견해의 차이 또는 해석의 차이로 이해하기 보다는 궁극적 사실을 지향하는 “플로우”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에게 객관성이란 그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담론들을 비교 평가의 영역에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보도가 전체 진리 탐구의 사회적 과정에서 대화를 심화시키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예시하였다.

	객관주의	탈객관주의	실용적 객관성
진실에 대한 태도	진실 접근 불가	진실은 허구, 사회적 구성물	진실은 목표
언론의 역할	진실의 대체	끊임없는 대화	진실에 대한 접근
핵심 규범	균형 전달	연대(Solidarity)	심화된 탐구
비판점	무책임한 관찰자	윤리적 허무주의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

본 연구는 형식적 객관주의와 탈객관주의 그리고 실용적 객관성의 개념을 진실에 대한 태도와 언론 보도의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적 규범의 관점으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진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객관주의 언론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기반하여 진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비판은 언론이 균형과 중립이라는 이름아래 단순 관찰자의 역할에 머물면서 기존 권력 질서에 편승하는 모습에 집중되었다. 반면, 탈객관주의적 관점을 단일한 흐름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탈객관주의적 관점의 저널리즘은 언론의 공론장으로서 성격을 과정주의적 또는 도구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하며, 구성주의적 진리관에 기반하여 대화와 연대를 위한 공론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기존 권력 관계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언론의 역할로 규정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은 하나의 해석체로서 다른 기관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지위를 갖는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탈객관주의적 시각은 객관주의 언론이 보이는 윤리적 무책임과 기성 권력의 강화로 귀결되는 언론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탈객관주의적 언론관은 언론의 객관주의 관행을 비판하는 데는 설득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언론이 어떠한 규범적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듯하다. 탈객관주의적 시각과 연결되는 이른바 공화주의적 공론장의 관점에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가 객관적 진실을 대체하는 언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보편타당성 판단의 대상이 아닌 대화 그 자체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규범은 상대화되며 궁극적으로 언론 윤리는 허무주의로 귀결될 위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주의와 탈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객관성에 대하여 객관성의 인식방법론적 타당성에 대한 정의가 아닌 규범적 가치를 중심으로한 실용적 판단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객관적 진실을 대체할 수 없는 궁극적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탐구하려는 언론의 정체성을 명명하는 윤리 규범의 실용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언론에 있어서 객관성은 본질적이기 보다는 수사적(rhetorical)이며, 기술적(technologic)이기보다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목적적인(telos)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용적 객관성의 속성을 첫째, 진실 탐구의 뚜렷한 동기로서 작동하며, 둘째, 언론 취재와 보도를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를 비교 판단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셋째, 보편적 타당성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흔히 대화모델 또는 연대(solidarity) 중심의 공론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공론장이란 결국 종착점이 없는 끊임없는 대화이며, 그 과정에서 웅변가(rhetor)의 역할이란 차이(differences)를 공론장으로 가져와 대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McKerrow, 1989). 현대 사회의 웅변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은 종착점이 없는 끊임없는 대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언론이 자신의 궁극적 목적(telos)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대화를 끊임없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대화는 단순히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역시 단순히 차이를 불러오는 것만으로 그 숙명적 역할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엇갈린 독백의 반복이며 공허한 선언의 순환인 것처럼, 객관성을 전제하지 않는 언론은 상대적 가치의 허

무주의 종착점으로 쉽게 귀결되는 무기력한 웅변가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언론 객관성의 실천적 가치란 결국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이자 실천적 해결책으로 작동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작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푸트남(Putnam, 2004)이 강조한 바 있듯이, 윤리학의 핵심적 질문은 윤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기 보다는 윤리적 문제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학의 접근 역시 객관성의 근원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언론 객관성이 어떠한 규범적 실용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언론학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널리즘 비평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많은 저널리즘 비평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공간에서 언론의 객관성을 달성 불가능한 것 또는 개념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정작 언론의 현재 모습을 비판할 때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준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자기모순적인가? 이러한 자기모순의 배경에는 언론학의 객관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미디어 사회학적 관점의 객관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윤리 규범적 논의로 확장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가 그러한 이론적 확장을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용적 객관성을 예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팩트체크라는 특정 영역의 보도만을 고찰하였기에, 본 연구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실용적 객관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보도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객관성에 대한 이해를 행태적 관심에서 규범적 논의로 전환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예시하기에 적합한 팩트체크라는 다소 특별한 영역의 보도에 대해서만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임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 담지 못한 실용적 객관성에 대한 사례 연구의 확장과 이론적 개념의 정교화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 (1994). 탈사실 시대에 있어 뉴스 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19-51.
- 권문한 (2008).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사승 (2013). <현대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사승 (2017).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의 차이와 장단점. <관훈저널>, 144호, 109-116.
- 김상호 (2007).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7권 3호, 5-38.
- 김필규 (2017). 저널리즘의 새 기대주 팩트체크. <관훈저널>, 144호, 91-100.
- 나미수 (2015). 미디어 수용자 연구하기. 언론정보학회 위임,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서울: 컬처룩.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233-270.
- 박아란 (2016). 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157-185.
- 유용민 (2018). 뉴스 미디어 창업시대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 요청: 저널리즘과 사회변동의 관계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4권 3호, 322-376.
- 원용진·이수엽 (2010). 인터넷 공론장의 현실적 기술을 위한 이론적 제안: 의사소통적 합의에서 협력으로. <언론과 사회>, 18권 3호, 71-109.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권, 86-128.
- 임동원 (2017).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 리프먼, 듀이, 로티와 저널리즘>. 파주: 아카넷

- 이준웅 (2010).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 언론학보> 54권 2호, 187-209.
- 이준웅 (2013). 소통은 진리를 위한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100-134.
- 이준웅·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 연구> 67호, 9-44.
- 정동우·황용석 (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차이 연구: 객관주의적, 탈객관주의적 관점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권 3호, 120-158.
- 정은령 (2017). 국내외 팩트체크 현황과 과제: 저널리즘 혁신 위해 멀지만 가야 할 길. <신문과 방송> 560호, 29-33.
- 정재철 (2018).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팩트체크는 정치인 거짓말 줄여주는 스피드건. <신문과 방송> 573호, 88-91.
- 정현철 (2008).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의 타당성에 관한 일 고찰. <사회와 철학>, 16호, 333-362.
- 최영재·홍성구 (2004).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26-438.
- 홍원식·이효성 (2016). Practical meaning of objectivity in the era fo journalism crisis.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권 2호, 107-125.
- 홍원식 (2014). 인터넷 공론장 돌아보기: 소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4호, 263-300.

- Cook, T. (1998). *Governing with the new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dson, D. (1997). Truth rehabilitated. In *Truth, Language an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wnie, L. & Schudson, M. (2009). The reconstruction of American journalism. *Columbia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cjr.org/reconstruction/the_reconstruction_of_american.php

- Durham, G. (1998). On the relevance of standpoint epistemology to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e case for "strong objectivity." *Communication Theory*, 8, 117-140.
- Hackett, R. (1984). Decline of a Paradigm?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251-274.
- Holstein, J. & Gubrium, J. (1997). Active Interviewing. In Silverman, D (ed.),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 Practice*. London: Sage, 113-129.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Pantheon.
- Gans, H. (1992). Multiperspectival News. In Cohen, E (ed.), *Philosophical Issues in Journal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 Glasser, T. (1984). Objectivity precludes responsibility. *The Quill*, February.
- Habermas, J.(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 (1991/1993).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Lichtenberg, J. (1991). In defense of objectivity.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216-232). London: Edward Arnold.
- McKerrow, R. (1989). Critical rhetoric: Theory and praxis. *Communication Monograph*, 56, 91-111.
- Putnam, H. (2004). *Ethics without Ontology*. MA, Boston: Harvard Univ. Press.
- Rowley, W. & Grimes, W. (1984). Three dimensional objectivity. *The Quill*, March, 1984.
- Ryan, M. (2001). Journalistic ethics, objectivity, existential journalism, standpoint epistemology, and public journalism.

Journal of Media Ethics.

Schiller, D. (1981). *Objectivity and the news*.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New York: Basic Books.

Schudson, M. (2001). The objective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Shoemaker, P. & Reese, S. (1996). *Mean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660-679.

Ward, S. (2004).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McGill-Queens Univ. Press. 이은택 역(2007). <언론윤리의 재발견>. 에프스테메.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Zelizer, B. (1993a). Has communication explained journ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80-88.

Zelizer, B. (1993b). Journalists as interpretive communit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 219-237.

투 고 일 자: 2018년 10월 15일

심 사 일 자: 2018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1월 28일

Abstract

Toward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Journalism Objectivity

: A Case Study of 'Fact Check'

Wonsik Hong

Dongduk Women's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dentify the journalistic ethic of objectivity from the critical domain of objectivism to the ethical domain of objectivity itself. This study argues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hetorical meaning of objectivity; rather than its ontological/ epistemological ground.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previous debate on journalistic objectivity. Through the reviews, this study argues that journalistic objectivity does not rest on an ontological/epistemological ground,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eir shared identity and ethical normative frameworks to legitimate their practices of profession. In order to exemplify the practical meaning of objectivity, this study conducts a case study of 'Fact Check' with the method of intensive interviews. The case study shows that the reporters of Fact Check have a strong motivation to follow the ethical norm of objectivity, in spite of their complicated, and even ironical understanding of objectivity. Also, through the norm of objectivity, they tend to define their reports and other social discourse in the terrain of comparing the universal validity of claims. Based on the case study, this study concludes that journalistic objectivity needs to be re-positioned as a normative practice for the purpose of journalism, a *telos*, which is to define the identity of journalism.

KEYWORDS objectivity, objectivism, ethical norm, public sphere, telos